

치 사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지만, 이 수고로움 덕분에 들판의 곡식은 더욱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생명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영예로운 포교대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사부대중 모두가 이러한 공덕을 오늘의 성취로 나누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종단은 사회와 이웃에 함께하기 위해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그리고 사회복지에 매진하는 일이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사찰과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는 실천을 진중한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실천과제를 정해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28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러한 종단적 서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오랜 기간 각각의 분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큰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고에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는 군불교의 척박한 여건에서 30여 년간 젊은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감로법을 전하신 공영호법사, 그리고 백호정사와 통일정사 등 법당을 창건하고 우리군의 동량인 생도불자들을 지도해 오신 육군사관학교 함현준법사도 수상을 합니다.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종단과 국회간의 화합과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불자회원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여 의원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오신 정갑윤, 강창일 의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밖에도 전국의 주요사찰 건축을 문화재급으로 조성한 신영훈님, 불교출판계를 평생 이끌어 온 윤창화대표님,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신 분 등, 수상자 모두 공심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3월 출범한 제7대 포교원이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포교기초에 충실하고자 진력을 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행혁신운동은 종단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문화 확산의 진솔한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고 있는지, 우리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향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포교에 전념하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포교대상의 공덕이 불교계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 주고 우리 사회에 청명한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